

잊혀져가는 우리 미(美)의 새로운 발견

최순우 지음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혜곡(저자의 호) 최순우 선생의 글을 맞고 나서 그 맛을 '문자'라는 외형물로써 건축하기가 두려웠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한국미를 그는 말하였고, 게다가 그 말은 나에게 있어 또하나의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한국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곧 어쭙잡은 나의 언어구사력으로선 그 맛을 올바르게 표현키는커녕 오히려 흠집을 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은 '흥' 때문이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자신도 모르게 절로 어깨가 들썩거리게 되는 것과 같은 '흥' 때문이다.

혜곡선생은 「무량수전 배흘림…」(학교재)에서 끊임없이 머리 숙여 '우리美'에 감사하고 있다. 별볼일 없어 보이는 돌·나무·흙 따위를 이리저리 다듬어서, '미'의 위치에 자리매김을 시킨 우리 선조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미'에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다시 발견하기도 하고, 잊혀진 모습을 되찾기도 한다. 또한 형체 없는 흥겨움을 맞보기도 하니 어쩌면 머리 숙임 정도로는 부족할 지도 모르겠다. 이리하기에 혜곡은 자신이 한국인임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사람 된 즐거움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감사함, 반가움, 그리움, 자부심은 이 책의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보편적 정조이다.

혜곡 선생의 글은 맛깔스럽다. 그가 한국미에 그러했듯이 그의 글을 대하면 마음이 겸허하게 된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한국미를 그는 말했으니, 그 말이 범상치 않음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의 언어미 또한 그가 탄성을 아끼지 아니한 한국미에 뒤처짐이 없으니 '당연'이라는 기대보다 훨씬 상위 한다 하겠다.

곧 저자는 무형의 아름다움에게 '살'과 '숨'을 주는 창조작업을 통해 무언지 모르게 아름답던 우리 것의 실체를 말로써 그려내고 있다. 또한 말을 씌어 있어 고운 우리말을 살려 썼고, 문장을 길게 썼으나 시처럼 운율이 느껴진다. 한마디로 언어구사력이 뛰어난다고 하겠다.

이 책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다. 이 모습은 예부터 물려오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유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을 대할 때 우리는 반가움이 있어야 하겠으나 실제론 새삼스럽거나 심하게는 낯설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들에 의해서 먼저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나 현재 우리의 경우는 어떠

한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 문화국으로서의 당당함이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가 '문명국이 곧 문화국'이 되어버린 현대 선진국 횡포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한우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억동 산94-6

이성호 지음 「당신의 자녀가…」

이미 모든 정규 교육 과정을 수료한 나이지만 교육은 아직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고—그래서 평생교육이라 하는가?—나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 문제에 맹목한 해답을 제시한 학자나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우리는 모두 교육의 희생양이 되어 70~80년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그 절곡의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되풀이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문이당)는 가정·학교·사회 이 모든 교육 주체들의 총체적 부조리가 우리 교육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문제제기에서부터 이 책은 출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원론적인 교육이론을 어렵게 설명한 책은 아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교육정책 실무 책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 이성호 교수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함으로써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자신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기에 충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교육의 지향점을 전인교육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제의 핵심을 학생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전인이 되라고 강요하기 전에 선생님 스스로 전인이 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은 전인교육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저자는 더 나아가 학생들에 대한 기성사회 중심의 권위주의와 보여주기식 교육개혁들을 꼬집는다.

「하라면 해」 「결과만 말해」 「누가 시키지 않는 짓 하겠니?」 등 학생들을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내는 교육현실, 교육의 주체인 '사람'이 상실된 채 학과목과 지식만이 있는 교육현실.

이성호 교수는 그 해결방안을 국민학교 교육에서부터 풀고자 한다. 졸다 깨어나서 보아도 이해되는 연속처럼 학교 교육의 내용을 대폭 줄이고 쉽게 만들어 학생들이 여유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저자의 주장이 어쩌면 현실성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면서도 책을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은 비단 나만은 아닐 것 같다. 방금 국민학교 1학년이 성적을 비판해 자살했다는 뉴스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힌다.

최호열

서울시 성북구 안암1가 206번지

루이스 지음 「이슬람문명사」

이슬람이라는 이름만큼 많은 오해와 신비에 쌓여 있는 것도 드물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음탕한 할렘과 반달 모양의 칼, 그리고 그 칼 아래 쓰러지는 많은 비이슬람인들의 피를 연상시킨다. 특히 이슬람이라는 세계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오해는 더구나 서구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굴절된 이슬람을 보아왔던 탓이 크다.(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갈파했던)

그 오해의 주역인 서양의 이슬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슬람의 문명을 총체적으로 다룬 책이 이론편찬사에서 나온 「이슬람 문명사」이다. 버나드 루이스 외 12명이 각자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저술한 이 책은 이슬람을 단지 하나의 종교권, 혹은 인종, 언어의 세계로 보지 않고 다양성과 전일성(全一性)을 함께 가진 하나의 문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이 문명권이 생겨난 계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계기는 당연히 이슬람이라는 종교이다. 그러나 이 종교의 교리나 이 종교가 이슬람 세계를 지배해 온 방식을 보아 이것이 단순히 신성한 종교이냐 아니면 하나의 사회 체계이냐에 대해서는 이슬람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고 한다.

「이슬람 문명사」는 무함마드가 이슬람 교를 창시하여 그 종교가 아랍 세계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역사부터 고찰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

와 다양한 종족, 유목이라는 생활 방식으로 인해 고대 이후에는 한번도 통일된 국가를 형성해 본 적이 없는(이 면에서 이란은 예외이다.) 아랍이라는 세계를, 그 이질성 속에서 동질적인 면을 찾고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슬람의 교리였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슬람 문명이라는 것은 이슬람 교가 생겨나기 전부터 아랍의 전통, 건조한 기후, 이민족의 침입에서의 부침, 서양과 대결 등의 과정을 겪고 나서 형성된 세계이다. 이 책은 그런 이슬람의 다양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했던(무역로나 전쟁로나) 이슬람의 활약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이 책 한 권을 읽는다면 이슬람의 종교, 예술, 문학, 과학, 군사까지 모든 것을 훑어 볼 수 있다. 또한 아랍 세계뿐 아니라 스페인, 이란, 인도 등의 이슬람 문화까지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이슬람 세계로 접근하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 시간의 변화와 상당히 광범위한 세계를 조망해야 하는 바람에 나같은 초보자가 읽기에는 너무 벅찰 수밖에 없었다.(저자와 역자의 말로는 일반인도 읽을 수 있게 평이하게 서술했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 책의 매력은 풍부한 화보와 삽화이다. 대표적인 고대 이슬람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의 미르틀레스 정원의 모습을 화보로 대하고 나면 이슬람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없더라도 이 책을 한 번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오늘날,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러나 상당한 가능성을 가진 서남 아시아, 남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 대한 안내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진짜 세계화일 것이다.

신수진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27-1 일성빌딩 도서출판 알곡

공지영 지음 「인간에 대한 예의」

최근 나는 30권의 소설과 7권의 시집을 읽었다. 물론 여기엔 이미 출판된지 몇년 지난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읽은 책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단연 공지영의

「인간에 대한 예의」(창작과 비평사)이다. 공지영의 이름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히트 덕분에 웬만한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이 아닐 것이다. 이 작가의 등단작을 비롯한 최근까지의 중단편을 묶어 놓은 소설집이 「인간에 대한 예의」이다.

9개의 중단편들이 각기 독특한 일면들이 있지만 그 모두가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게 솔직한 나의 감상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녀가 만만한 작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따뜻하면서도 명쾌한 '세상 읽기'의 시각을 접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정점을 이루는 것이 그녀의 작품집과 같은 제목인 '인간에 대한 예의'이다.

아직까지 단 한편도 학생운동을 그린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젠 4·19와 5·18 같은 운명으로 뛰어들 만한 운동이 있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모두 무사안일주의자가 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은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그 어떤 물보다도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의 강에 내 힘은 보잘 것 없다면서 다들 흐르는대로 살자는 지금, 과거에서 돌아온 사람(등장인물 권오규처럼 한때 운동권이었고 한동안 수감생활도 해 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를 말하고 있다.

“시대와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다고 결심할 때, 아니 적어도 이것이 있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기대 속에서 내일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간혀 있어 문을 안에서 열 수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인물과, 역사가 심판할 일이라면서 뻔뻔스럽게 말하는,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인물들이 공존하는 이 때 다시 한 번 읽게 되는 작품이다.

이은희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71-1 38동 7번

이순원 지음 「에덴에 그를 보낸다」

자신을 둘러싼 시대적·사회적 여러 징후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솔한 문화적 풍경에 그들을 담아내는 일은 작가의 고유한 권한이자 또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압구정동에 비상구가 없다」

의 작가 이순원의 새 장편소설 「에덴에 그를 보낸다」(책나무)는 성실한 작가 이순원의 보다 심원해진 글쓰기의 영역을 노정한다.

지난해 PC통신 하이텔 문학관에 연재 도중 지존과 사건의 예견이라는 사회적 충격 속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소설은, 압구정동으로 연쇄테러의 형식으로 비판했던 '압구정동' 연작의 세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에덴에 그를 보낸다」는 테러를 통한 왜곡된 천민자본주의의 경고라는 기존의 작품의도와 더불어 '문학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문학 효용론의 근원적 물음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농밀해진 주제적 접근을 시도한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진실된 글쓰기에 노력하는 '작가'와 험난한 세상 앞에 문학은 무력할 뿐이라는 '테러리스트'의 본원적 양 축을 통해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진지하게 되짚어 본다.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기법 속에 테러리스트 T와 작가 이득지의 독백들이 씨줄과 날줄로 교차되는 이 소설의 또하나의 매력은, 테러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식이 끔찍한 범죄소설이나 저속한 추리물로 변질되는 것을 방어하는 독자 몫의 건강한 깨달음에 있다.

결국 이 소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압구정동으로 30cm씩 다가서기를 꿈꾸게 된다는 이곳 한국에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에덴을 발견하고 바로 그 위에 온전하게 뿌리내리며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물신의 사회, 그 속에서 버겁긴 하지만 열심히 매진해야 할 우리의 방향성이 진지하게 모색되어 있는 소설 「에덴에 그를 보낸다」를 읽고 나면, 많은 자기반성들이 조용히 떠오를 것이다.

유영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24-12호 9동 8번

◇독자서평 투고 환영.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 투고자의 성명·주소·직업과 책명, 역지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할 것. 게재된 글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

본원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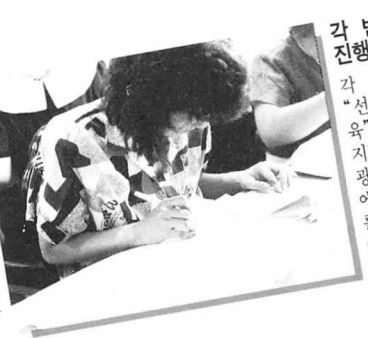
본원 발행 취업예정자 명단을 받아보지 못한 업체께서는 연락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편집 취재기자로 첫발을!



강사와 학생간의 깊은 우대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출판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카운셀링이 되어주고 있으며 교육진행중 학생들과 담임강사가 함께하는 1박2일 워크숍을 통하여 편집인으로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교육은 완전히 배제
본격적인 출판편집실무교육의 장으로 본원의 교육성과를 인정하여 본원을 한국출판학회와 한국출판사협회에 추천교육기관으로 선정(89.1.30)해 주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편집인력의 지정교육기관으로 위촉(88.12.28)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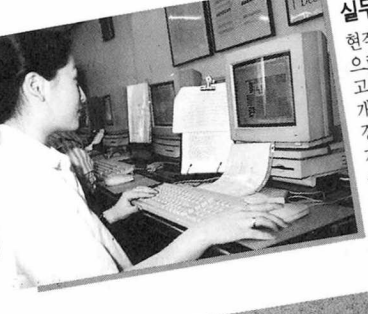
각 반별로 담임강사 진행
각 반별 담임 강사들은 “선배 편집인의 후배 교육”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교육내용 중 때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편집현장과 밀착된 교육체계
출판현장에서 필요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교육과 출판사, 제책소, 인쇄소 등을 견학하여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접목하여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료후 취업문제
본원을 수료하면 전원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알파한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수료생 전원 이 안정된 취업을 목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94년 5월 현재 총 수료생의 95%가 취업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과정별 잡지 단행본을 직접 기획 제작
체계적인 편집이론과 충분한 실습을 거친 후에 잡지, 단행본 등 기별 과정별로 시판중인 잡지, 단행본 등과 동일한 수료작품집을 직접 기획 제작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자출판 실무교육 실시
현직출판계 편집자나 처음으로 컴퓨터 편집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초보자일 경우는 본인 정규과정중 기본과정 이수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없이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서울편집학스쿨

문의(代) 672-1841,2 FAX 671-8317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출구방향 100m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DITORIAL DE SIGNS

SCHOOL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